

#### 4 베드로와의 첫 만남

바울과 베드로, 둘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누구보다도 바울의 이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그 가르침,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알고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베드로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지 않았지만,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시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이고, 길리기아는 그 더 위 쪽,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14km 떨어진, 바로 바울이 태어난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4년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은둔합니다. 그 곳에서 가르침을 전했다는 얘기도,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갈1:22)

다만,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저기에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갈1:23)

그렇게 '유대-그리스도인들(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던 그가 이제 자기 스스로 없애려고 한 그 복음을 들고 전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이상히 여겼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 5 바울로 인한 사람들의 고백

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스스로만 사람들을 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만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 하였다." (행9:26)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바울, 그가 회심하고 변했다는것을, 그가 예수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진정 바울 맞느냐?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울이 맞느냐?"

그러나 이 바울의 회심의 소문은 온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전해 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회심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갈1:24)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증오로 가득찼던 자였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찼던 자였습니다.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찼던 자였습니다. 그건 바울, 예수를 핍박 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최진영 목사]

[www.weppc.net](http://www.weppc.net) 홈페이지에서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 갈라디아서강해(3)

Galatians 1:11-24

지난주 수요성경강해 2022년 7월 20일 (수)

파사데나장로교회



1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 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갈 1:11-12, 새번역)

바울은 여기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말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이것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어떤 고상하고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이 사람에게서 받고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전해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성경, 구약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지켰던 사실들이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갈 1:14)

그러면 참 '복음'을 깨닫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 바울의 이전의 모습 (다메섹)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회를 몹시 박해 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갈 1:13)

바울의 눈에는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은 배교자들로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은 아주 어리석은 자들로 보였습니다. 나무에 달린자는 저주 받은 자라고 여겨졌던 당시, 유대인인 바울의 머리속에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은 저주 받은 자를 믿는 아주 어리석고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바울이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 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행9:1)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바울의 유대식 이름]

그런데 이걸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다메섹(다마스쿠스)에서, 더 많은 예수 추종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사건을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갈 1:15-16)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

3 변화된 바울 (아라비아 사막)

도,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추종자들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직접 만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말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과 만났을 자신의 놀라운 영적체험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왔습니다." (갈 1:16)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바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바울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직접 몸으로 예수님의 삶을 배웠듯이,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동안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기간이 있었기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수제자, 초대교회의 수장파도 같은 가장 중요한 사도 중의 한 명인 베드로였습니다.

"삼 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동안을 지냈습니다." (갈 1:18) [게바는 '베드로'의 아랍어식 이름입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모두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게바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와 15일을 지냈다고 말합니다.